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266면 (C해)

제1독서: 여 호 5, 9a. 10-12

제2독서: II 고린 5, 17-21

복음: 루 가 15, 1-3. 11-32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
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루가 15, 23).

□ 강론



기다리시는 아버지

양 경 배 신부

사순절의 전례 의의는 회개에 있다. 그래서 "웃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어라"(요엘 2, 13)라는 구약의 외침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라는 신약의 외침은 사순절기간 동안의 큰 맥락을 이루고 있다.

"회개"라는 단어를 수 없이 들어오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느끼지만, 어떤 경우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의 강박관념처럼 느껴지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한다. 아마도 회개후 느끼게 되는 기쁨과 행복함보다는 회개전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머리를 더욱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복음은 사순 제2주의 복음에서 당신 친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수난 예고를 접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격려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줌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속에 있는 우리에게 "회개에로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주일을 일컬어 "기쁨의 주일" 혹은 "환희의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한층 더 힘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루가 15, 20)의 모습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항상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려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다.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는 바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당신 품안으로 돌아올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다. 과거의 나의 죄상(罪狀)을 묻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삶에 있어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게로의 통회의 눈물을 보시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루가 15, 20)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I 요한 4, 10) 그 모습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께 돌아오는 나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받을 상(賞)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회개)이다.

아버지의 품으로.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탁하고서!

(덕진 보좌신부)



그게 정말이요?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는 금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강론자료를 냈다. "1985년 3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재벌그룹 11개 대기업의 전체 노동자중에서 38.5%가 월1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 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자 한 사람의 최저생활비는 월17만원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생활비의 절반으로 하루 하루 연명해 나가며 고된 일을 하고 있다."

3월 10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재벌그룹에서 'OO가족'이라는 말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우리는 'OO가족'이 아니라 'OO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당국과 경제단체 모임이 지난 3일에 있었다. 그런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노동부장관과 전경련회장·상공회의소회장·무역협회장·중소기업 중앙회장·경영자총연합회회장의 간담회라서 호텔에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호텔에 앉아서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서민들의 머리와 감정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된다.

야당 대변인은 "최근 반월공단과 인천공단 등에서 우려할만한 근로자들의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려할만한 근로자들의 시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도 보도는 제대로 안되고 야당 대변인의 언급을 통해서나 루머잡는 이야기로 들어야 옳은 것인가! 사람은 세상에서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 이러한 권한이 생존권이며 인권이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에 고통중에 살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애정을 보내자.

숲 정 이 산책



정말한 주장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3월 10일—

김 영 신 신부

근로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떠한 처지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노동자와 노동문제에 관한 일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인가? → 이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과제들이다.

교회는 노동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친다. —노동은 직접 인격(人格)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격은 자연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연물을 자기 뜻에 굴복시킨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동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인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사복헌장 67)

그런데 우리들은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근로자들은 오직 살아야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기업주를 또한 신심쓰며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삭막하기 그지없다. 겉으로는 노사협조를 말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노사대립이 풀릴 수 없는 응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현장의 자그마한 실제들을 보자. 우리나라는 섬유, 전자 등 생산직 근로자가 3백만명인데, 그중 60%가 월 10만원 미만의 봉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 54.3시간의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노동자 복지협의회는 1인의 여자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18만7천여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장래문제나 가사보조는 생각할 처지도 못되며, 자신의 생계유지조차 감당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결혼식없는 동거생활이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누가 이들에게 자신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오랜 기간의 작성제 복용에 따르는 입실불능 등의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되어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둘이 아니다. 절박한 현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시끄럽다고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보잘것 없는 한 사람, 이 시대의 예수가 일하고 있는 노동현장을 직시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 작은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노동청년회 전주교구 지도신부)

□성서교실 38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가 15 : 18)

「탕자의 비유」는 40여 예수·비유 중에서 양(量)적으로도 제일 많고, 내용(內容)적으로도 가장 값진 진 주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한다. 여기에 루가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본문(本文)의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무과해 버리고 만다.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탕자가 아버지께 무엇을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분배를 받았던 것이다. 그가 일단 재산을 받았다면, 그가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누구도 상관할 바는 아니다. 아버지라도 그것을 놓고, 시비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했던 것」,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가 「본심」(本心)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다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의 사상, 도덕, 인간분위의 사고(思考)의 「암운」이 이제 걷히고, 진(眞) 인간 마음이 환히 떠오르기 때문이다. 「암운」이 걷힌 양심을 가지고 탕자가 과거를 돌아다 볼 때,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했고, 유린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말할 수 없는 죄의 자책으로 느껴지는 마음을 그는 갖게 되었다. 그는 이제 빈 몸으로 「수치」, 외문(外聞)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림자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신곡)라고 말할 수 있는 심경에 도달할 때 인간은 처음으로 진(眞)인간이 되는 것이다.



<p>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점병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p>	<p>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2496 3 8653</p>	<p>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서원 옆 ☎ 72-5770 김 홍균(베드로)</p>	<p>성 훈 치 과 관동도로 사거리 (전일권광 2층) ☎ 75-1113 최 성 훈(빈첸시오)</p>
--	---	--	--

교 구 소 식

1. 박정일 주교님 춘계 주교회의 참석 : 10일~14일 수원에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교구 제모임 : 오늘 오후 2시30분 센타 교육관
3. 웨필라레여자 전체 제대회 : 3월 22일 오후 5시~23일 오후 5시 (1박2일)
가톨릭센타 교육관, 회비-2천원
4. 성소자 모임 : 오늘 오후 2시~6시, 대상-중·고·대·일반
주제-작은 예수가 되는 길, 장소-가톨릭센타 회의실
5.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구리아 : 오늘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대상-전주지주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지도신부-최상범(요셉) 신부
6. 5월의 마돈나 꼬미시움 : 오늘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7. 교구 교리교사 월례회 : 10일(월) 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타 3층
내용-인형극 보고 및 하계 교재 편집
8. 자영업적 가족계획 사용자를 위한 교육
대상-미혼 남녀·피임을 원하거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부부동반 환영)
11일 오전 10시~12시 가톨릭센타 2층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5098)
9. 3월중 교구 꼬미시움 회의 : 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10. 전화번호 안내 : 연지동천주교회-사제관·사무실 (0681) 33-0898(14일부터)

※ 가정기도 시편 6:1-10 독서 : I고린 10:12-13 복음 : 마르코 13:32-37

♣ 잠 간 !

당신의 돼지 저금통은?

우리 교구 현재 신학생 수는 40명, 다른 교구에 비해 많은 성소자에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일- 그러나 그들을 위한 교육과 생활에 많은 경비가 든다. 이에 우리 교구는 매년 사순절동안 각 본당별로 성소후원을 위한 현금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지만 각 본당별로 돼지저금통을 살찌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사는 교구출신 신자들은(재경 성소후원회) 교구 성소 육성과 그 후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매월 많은 돈을 보내오고 있다. 성소육성의 의무가 전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한 것일진대 우리 모두 관심가지고 저금통을 채우자. 앞으로의 교회를 지도해갈 사제양성에 우리 모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더 잘 일하기 위해...

1984년 5월에 개설, 이 지방 교회사 연구를 위해 꾸준히 연구활동을 담당해온 호남교회사 연구소(소장-김진소 신부)가 이사를 했다. 이전 가톨릭센타에서 전주교구 사회복지회관(구. 성모병원) 4층으로 자리를 옮기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특히 교구설정 50주년을 기해 교구사 편찬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 큰 발전을 빌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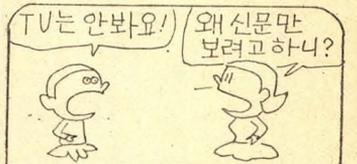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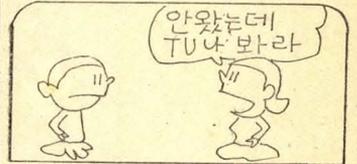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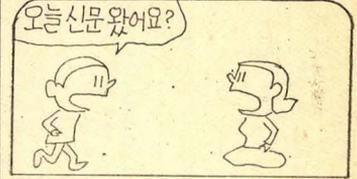
농민회가 다시 가톨릭센타 230호로, M·E가 센타 338호실, 행가운동이 센타 2층으로 옮겨졌고 평형 사무실은 교구청 사내로 그리고 중고생연합회, 중고생지도자연합회, 대학생연합회, 교리교사연합회 등은 교육관으로 그 사무실을 이전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사순절 현장체험-김제 신풍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내려는 노력들이 한창이다. 김제 신풍본당에서는 이번 사순절동안 인간의 고통의 의미와 그 신비를 묵상, 특히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한 부활의 신비를 실제 체험하고 실생활을 새롭게 추스르기 위해 삶의 현장체험을 위한 소록도 나환자를 방문했는데-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신앙 안에서 참다운 부활의 기쁜 삶을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다. 아무리 가난한 밀밭당 생활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호강스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삶의 용기와 기쁨을 새롭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십이 (657) 김병오



초대의 말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노동절 기념잔치를 개최 하오니 함께 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전주교구 연합회—

노동절행사 기념잔치

제1부 : 기념식
(장문 : 박정일 주교)

제2부 : 배동놀이

장소 : 전주 덕진성당

일시 : 1986. 3. 10(월)

오후 1시~오후 5시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칠구류 | ©
* 각종 솜 일체 |
* 커넥지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길(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부동산 투자 상담 (토지, 임야, 상가, 주택, APT 등)
* 컴퓨터 정보처리(전북 최초)
* 2,000만원 영업보증제 실시

호남부동산 중개 유한회사

오 재 천 (안드레아)
(원정성당 사목회장)

전주 ☎ 75-0247
(관동로 민정회관 옆 2층)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끈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금주는 증거하는 주간입니다 (선조 성인들의 생활을 반반음시다)
- ※ 다음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 1.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구역장님들, 사목회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2. 공소 판공일정: 12일 오전 10시-신원리공소, 12일 오후 2시-왕정리, 14일 오전 10시-황운리·금상리 14일 오후 2시-신교리·다리리공소
- 3. 본당 판공일정: 16일 오후 2시-조동부 어린이(아파트·본당), 18일 오후 2시-우아아파트, 19일 오전 9시-인후아파트, 20일 오전 9시-인후동, 21일 오전 9시-중노2가동, 22일 오후 2시-직장인들, 23일 오후 2시-중·고학생들, 24일 오전 9시-남노송동, 24일 오후 2시-우아동, 25일 오전 9시-중노1가동, 26일 오전 9시-기타지역
- ※성사주는 시간은 매일 오전 9시~12시까지, 오후 2시~5시까지입니다. 일정과 시간을 엄수하여 성사를 받으십시오
- 4.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각림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5. 교직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중·고·대학 선생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6. 아버지들 미사: 매주(목) 저녁 7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7. 금주의 전례담당 (제3주) 해설-임영빈, 독서-용현-배기창 부부 기도-김진희 부부, 촛불-극용남·전경자
- 8. 다음주일 공식미사전에 선발예식이 있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500,170원 교무금: 322,000원 신축현금: 3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제2섬당 주일미사: 매주 오전 9시30분
- 2. 설가대: 저녁미사후에 매일 연습하고 있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 반장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4. 성심회: 13일 오후 2시
- 5.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6. 유아세례: 20일 미리 신청바랍니다
- 7. 9일기도: 11일~20일까지 레지오 협조단원 참석바람, 장소-본당 시간-미사와 함께 9일기도 합니다
- 8. 아치에스행사: 21일 오후 2시, 전단원 참석바람
- 9. 중·고생 선·후배 중계체육대회: 오늘 오전 10시에 완산고등학교 운동장
- 10. 재속프린치스코 형제회: 오늘 1시30분, 수도복 준비
- 11. 예비자교리: 교우분들께서 많은 인도바랍니다
- 12. 중·고생교리-토요일 오후 6시, 일반-공식미사 후
- 13. 오늘봉헌: 한형수 부부 차주: 조정웅 부부
- 14.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김배근, 독서-①차상열 ②최창림
공식미사: 해설-고복근·김은경
독서-①함문권 ②신영창
- 15. 저녁미사: 해설-전경선, 독서-①강경화 ②김정민
- 지난주 봉헌금: 404,190원 교무금: 140,000원 미수금: 8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예비자교리: 지성인-매주 목요일 저녁 7시40분 (본당신부님 지도) 일반-매주일 공식미사후(김누시아 원장수녀님지도)
- 4. 복자부녀회 1월피정: 20일 오전 10시~17시 장소-복자성당(부녀회원 전원 참가바람)
- 5. 가정방문: 11일-오전 중앙동1반(정누시아 반장님)·오후 중앙동2반(장세시리아 반장님), 12일-오후 다가동4가 1반(유마리아 반장님), 13일-오후 다가동4가 2반(조마리아 반장님)·오전 다가동4가 3반(신발바라 반장님), 14일-다가동2·3가반(고크리스티나 반장님)
- 6.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교리, 3시 어린이미사에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 7. 사순절 저금통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 8. 금주침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차주침소: 월-사랑하을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 9.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최창기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강기연
- 지난주 봉헌금: 255,590원 교무금: 481,3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1. 금주의 가정방문 일정 11일-백암·신흥, 12일-원신·상신, 13일-하신, 14일-색장·용암·기타
- 2. 21일 전신자 1월피정 및 판공성사 피정-10시~오후 5시 판공성사-5시~6시30분 ※ 피정으로 참고를 대신함
- 3. 이달 구역형제회 및 우정의날 행사는 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2,400원 교무금: 61,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지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 2. 성화회·교미시움: 다음주
- 3. 예비신자 집중교리: 13일~25일 오전-10시30분, 오후-7시30분
- 4. 사순절 9일기구: 17일~26일(주일은 제외) 장소-치명자산, 오전 5시30분
- 5. 전동 판공일정: 17일~22일(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17일-전동, 18일-동교동·서교동, 19일-동완산동·서완산동, 20일-풍남동·남노송동, 21일-중앙동·경원동·다가동, 22일-학생·직장인·기타
- 6. 본당 2월말 결산현황: 총수입-18,558,427원 총지출-18,390,510원, 현잔액-167,917원
- 7. 영화상영(미사해설): 12일 저녁미사 후(7시30분) ※ 모든 신자들과 특히 예비신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8. 다음주 봉헌담당: 조용원 부부 ※ 봉헌하실 부부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최중만,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종두 ②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 훈 ②서정열
- 지난주 봉헌금: 921,070원 교무금: 744,5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종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감사합니다: 자모회(87만원)-지하성당 성합, 중부 가방갯트, 14처 상분, 장봉
- 2.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소수자, 부회장-성주용, 총무-이덕기, 서기-안정옥 전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 3. 이가브리엘라 수녀님 부임 김라우라 수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4. 사목방문: 호자동지-11일, 호자2단지-13일 ※ 오전 9시부터
- 5. 주부성서대학: 12일 오전 10시-요한 1·2·3서
- 6. 중·고·대학생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82,690원 교무금: 832,000원 미수금: 110,000원